

<p>01 고대 문명</p>	
<p>에게 문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청동기 문명 • 크레타 문명(코노소스 궁전) ⇒ 미케네 문명 ⇒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
<p>02 고대 지중해 세계</p>	
<p>그리스의 폴리스 (기원전 10세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스(아고라·아크로폴리스, 헬레네스, 올림피아 제전) • 스파르타 : 도리스인, 헤일로타이(예속 농민)·페리오이코이(반자유민, 농업과 상공업 등에 종사), 군사 통치 체제, 모든 남자 시민에게 집단생활과 군사 훈련 • 아테네의 정치 변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왕정 ⇒ 솔론의 금권정 ⇒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僭主) 정치 ⇒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부족제 개편(혈연 → 거주지)], 500인 평의회, 도편추방제 <div data-bbox="546 592 2063 77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클레이스테네스는 귀족 명문가 출신으로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정을 비판하였다. 사실 그는 원래 민중의 이익에 주목하거나 민주정을 적극 옹호한 인물은 아니었다. 오히려 귀족정으로의 복귀를 꿈꾸면서 참주정 타도에 앞장섰고, 이 과정에서 민중의 힘을 이용하려 했을 뿐이다. 당시 참주정 하에서 증폭된 민중의 저항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그는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권의 수립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족제 개편과 도편추방제로 상징되는 아테네 민주정의 눈부신 성취 그 이면에는 이처럼 민중의 정치적 자각과 그에 기초한 사회적 압력이 작동하였던 것이다. - 사라 포메로이, 『고대 그리스』 -</p> </div> 2 그리스·페르시아 전쟁(기원전 492~기원전 479) :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의 침공, 폴리스 연합 결성, 마라톤 전투·테르모필레 전투·살라미스 해전 : 델로스 동맹 결성(기원전 477) 3 페리클레스 시대(기원전 457~기원전 429), 델로스 동맹의 맹주, 제한적 직접 민주정, 공직자 추첨·수당제 시행 <div data-bbox="546 951 2063 102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페리클레스은/는 처음으로 배심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키몬의 부유함에 대해 민심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키몬이 제왕과 같은 부를 과시하며 먼저 공공 봉사를 훌륭하게 수행했기 때문이었다.</p> </div> 4 펠로폰네소스 전쟁(폴리스 간 대립, 기원전 431~기원전 404) <div data-bbox="546 1086 2063 130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공세가 본격화되자, 아테네는 페리클레스를 스트라테고스(장군)로 임명하고 대규모 함대를 급파하였다. 페리클레스의 반격으로 주요 군사 거점을 상실하는 등 타격을 입은 스파르타의 군대는 아티카 지방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아테네인들이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위해 많은 나무를 벌목하자 온 땅은 메말라 가고 전염병이 창궐하여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크게 낙담한 시민들은 페리클레스가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며 폴리스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분노한 시민들은 페리클레스를 그 직위에서 해임하고, 사소한 혐의를 트집 잡아 벌금을 그에게 부과하였다. 곧이어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조속한 종전(終戰)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아테네의 강화 요구는 철저히 외면받았고 전세가 더욱 기울어지자, 아테네인들은 페리클레스를 다시 스트라테고스로 선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디오도로스 시켈로스, 『역사 총서』 -</p> </div> • 스파르타의 패권 장악 ⇒ 테베 시대 ⇒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의 폴리스 지배 • 다신교, 인간 중심, 소피스트·소크라테스, 호메로스·헤시오도스, 헤로도토스·투키디데스의 『역사』, 조화와 균형의 미(파르테논 신전)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02 고대 지중해 세계

<p>알렉산드로스 제국 (기원전 33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방 원정(기원전 3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소스 전투·가우가멜라 전투[⇔ 다리우스 3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멸망], 이집트 정복, 인더스 강 유역까지 진출 :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제국 형성 ⇨ 알렉산드로스 사후(기원전 323) 마케도니아, 시리아(셀레우코스 왕조), 이집트로 분열 ⇨ 로마에 정복 • 페르시아의 전제 군주제 도입, 동서 융합 정책[세계 시민주의, 알렉산드리아 건설(그리스인 이주), 페르시아인과의 혼인 장려] • 헬레니즘 문화(그리스·오리엔트 문화 융합) → 인도 쿠산 왕조의 간다라 미술에 영향 • 라오콘 군상·밀로의 비너스, 에피쿠로스학파·스토아학파, 기하학(에우클레이데스)·물리학·의학 발달, 무세이온(Mouseion, 학당) 건립
---------------------------------	--

02 고대 지중해 세계

<p>로마 (기원전 8세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원전 8세기 중엽 도시 국가로 수립 ① 왕정 ⇨ 귀족 공화정(기원전 509~) ⇨ 공화정의 민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민관 제도(기원전 494, 집정관·원로원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평민회 설치(기원전 472) : 12표법(로마 최초의 성문법, 기원전 450) → 리키니우스법(집정관 중 1명의 평민 선출, 기원전 367) → 호르텐시우스 법(평민회의 결의가 원로원의 동의 없이 국법으로 인정, 법률상 귀족과 평민의 권리 대등, 기원전 2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포에니 전쟁(기원전 218~기원전 201) ② 이탈리아반도 통일(기원전 272) ⇨ 포에니 전쟁 승리[⇔ 카르타고, 서지중해 패권 장악, 기원전 264~기원전 146],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정복 ③ 라티퐁디움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 경영 확대로 인한 자영농 몰락 ④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농지법 제정(유력자의 공유지 과다 점유 제한, 자영농 육성 시도), 곡물법 제정(빈민들에게 안정적인 곡물 제공), 기원전 2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 → 귀족파(벨족파, 옴티마테스)와 평민파(포플라레스)의 권력 투쟁 ⑤ 스파르타쿠스의 난[카푸아의 검투사 노예, 자유를 외치며 봉기, 기원전 73~기원전 71] → 크라수스의 진압 ⑥ 제1차 삼두정치(카이사르·폼페이우스·크라수스, 기원전 60~기원전 45) ⇨ 제2차 삼두정치(옥타비아누스·안토니우스·레피두스, 기원전 43~기원전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티움 해전(아그리파의 활약, 옥타비아누스의 주도권 장악, 기원전 31)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세 명의 유력 정치인들이 국가 권력을 침탈하려는 열망에 빠져 각자의 권력을 균등하게 분점하는 데 합의하였다. …… 그리하여 먼저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을 차지하였고, 크라수스는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였으며, 폼페이우스는 이베리아반도를 손아귀에 넣었다. 이로써 세상의 임페리움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이 세 실권자 간의 연대에 의해 장악되었던 것이다. - 플로루스, 『로마사 개요』 -</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시대(기원전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옥타비아누스가 군대와 재정을 장악하고 사실상 황제로 군림, 프린킵스 칭호 사용,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존엄한 자)’ 칭호 부여 ② Pax Romana[로마의 평화 시대(기원전 27~기원후 180), 5현제 시대(네르바 → 트라야누스 → 하드리아누스 → 안토니누스 피우스 → 아우렐리우스)] ③ 군인 황제 시대[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게르만의 침입, 콜로니투스 제도(부자유 소작농인 콜로누스 이용) 확산, 235~284] ④ 로마의 중흥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오클레티아누스 (군인 황제 시대의 혼란 수습, 4분할 통치, 전제 군주제 강화) ⇨ 갈레리우스의 관용령(311) ⇨ 콘스탄티누스 [밀라노 칙령(~리키니우스, 313), 니케아 공의회(325), 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330)] ⇨ 테오도시우스 황제(크리스티교의 국교 선포) ⇨ 분리(서로마 : 동로마, 395) • 실용적 문화(법률, 아피아 가도, 콜로세움, 판테온), 스토아 철학, 『로마사』(리비우스)·『영웅전』(플루타르코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	---